

## 한국전력공사

### 월성2호기 준공 原電 1천만kW 돌파

국내 두번째 중수로형 70만kW급

국내 두번째 가압중수로형 원전(原電)인 월성2호기가 91년 10월 착공후 5년 9개월간의 건설공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9월 3일 준공됐다.

발전용량 70만kW급의 이 원전가동으로 국내 원전설비는 1천32만kW에 달해 지난 78년 국내에 원전이 처음 도입된 후 19년 만에 1천만kW를 넘어서게 됐다.

지난 7월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한 월성2호기는 지난 83년 4월 준공된 월성1호기 이후 14년 만에 준공된 국내 두번째 중수로형 원전으로 총 공사비 1조3천3백억원, 건설연인원 4백만명이 투입됐다.

중수로형 원전은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형과는 달리 원자로 감속재로 보통물(경수: H<sub>2</sub>O)이 아닌 중수(D<sub>2</sub>O)를 사용하며 운전 중 정지없이 연료교환도 가능해 가동률이

80%수준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월성2호기의 준공으로 국내 원전설비는 78년 4월 고리1호기 준공이후 19년만에 총 전력설비 4천53만kW의 25%인 1천32만kW에 달하게 됐다.

## 한국전력기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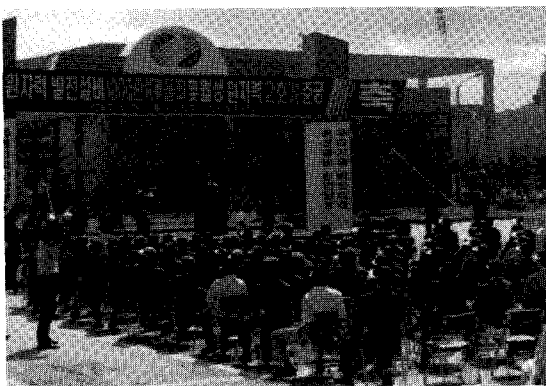
### '97 상반기 심사분석 보고회의 개최

경쟁력 확보 전사적 노력 다짐

한국전력기술(주)는 97년도 상반기 심사분석보고 회의에 임원 및 경영간부를 비롯하여 전처실장 및 수석급 이상 사업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1일 오후3시 본사 용인 사옥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심사분석 보고회의에서는 97년도 경영 관리목표 해설, 수지실적, 상반기 사업단별 손익실적 및 연간 전망 총괄, 인력운영 실적, 사업개발 실적, 97년도 경영관리 목표 득점 예상, 기술개발비 집행 실적 및 전망 보고, 설계전산화 추진실적 보고, 각 본부 및 사업단별 사업수행 실적 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전력기술 李虎林사장은 강평을 통하여 「경영자율화 원년인 97년에는 경영관리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여 자율화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탄력적 시간근무제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점을 강구하며,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 한국중공업(주)

### 중국에 대규모 시멘트공장 건설

中·대만업체와 3자합작

한국중공업은 중국 및 대만기업과 대규모 시멘트공장을 합작으로 건설·운영한다.

한중 朴雲緒사장은 지난 9월 8일 중국 복건성(福建省) 하문시(廈門市)에서 장평시(漳平市) 정부산하기관인 장평시 건축재공업공사(建築材工業公司) 진건수(陳建壽)사장, 대만 한중중분유한공사(瀚中股分有限公司) 진각수(陳覺修)사와 3자 합작사인 「장평·한중 시멘트유한공사(Zhangping Hanjung) Cement Co. Ltd」 설립에 관한 합작계약서에 서명했다.

3사간의 구체적인 출자비율은 추후 협의키로 했으며, 9월말까지 중국국가 계획위원회의 사업승인을 얻는대로 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합작사인 「장평·한중 시멘트유한공사」는 총 5억달러를 투자, 복건성 용암지구 장평시에 연산 1백60만t(일산 5천t)규모의 시멘트공장 2기를 건설한 후 고급시멘트를 생산, 수출 및 중국시장 판매에 나서게 된다.

한중은 턴키방식으로 12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0년과 2001년에 1호기와 2호기를 각각 준공할 예정인데 1호기 건설 수주금액은 3억8백만 달러이다.

한중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를 중국뿐 아니라 대만 홍콩 등지에도 수출키로 했다.

중국 복건성지역에는 지난해 1천3백50만t의 고급 및 저급 시멘트가 생산되고 있으나

이중 고급시멘트 생산량은 2백만t 정도로 수요량인 4백만t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00년대 중국의 고급시멘트 수요량은 8백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시장성이 매우 좋은 편이다.

##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 절약 기술교육 전수

개발도상국 에너지관리자 대상

에너지관리공단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서울 동서울호텔(강변역소재)에서 실시되는 이번 국제연수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후원으로 지난 95년부터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아시아, 중동, 중남미, 동유럽 등 세계각지의 9개국 18명의 에너지관리자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 우수에너지절약 기술소개를 비롯한 다양한 이론교육 뿐만아니라, 산업체의 에너지현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진단실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연수사업을 통해 한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및 효율에 관한 시책을 소개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개도국과의 긴밀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한국에너지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선진국의 위상과 역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쌍용정유(주)

### 사우디아에 국내최초 휘발유 수출

올해말까지 1백80만배럴 계약체결

쌍용정유(주)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국내 최초로 휘발유를 역수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97%의 에너지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에 휘발유를 수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국제석유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쌍용정유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사우디아람코에 올해 말까지 수출키로 한 물량은 1백80만배럴로 장기수출계약에 따라 지난 7월 22일 울산지역본부 전용부두에서 첫 항차분 33만배럴을 선적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휘발유는 옥탄가 95이상의 고급휘발유로, 수출가격도 싱가포르시장의 국제시세보다 높은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 올해 말까지 매월 30만배럴정도를 수출함으로써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용정유는 지난 82년부터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국내외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 96년에만 20억달러의 유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국제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준공한 최첨단 B-C 크래킹 센터를 통해 정유산업을 단순정제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 올해 들어서도 활발한 수출실적을 보여 중국, 싱

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에 이미 3천만 달러의 휘발유를 수출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 열배관 정보시스템 자체개발 추진

지하매설물 체계적 관리 운영

한국지역난방공사는 8월말까지 열배관 정보시스템을 모두 완료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92년부터 GIS분야의 FM(Facility Management)를 적용하여 열배관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온 지역난방공사는 열배관 매설지역의 지형도, 배관계통도, 배관시설물, 주요지역의 사진, 배관준공도면, 열배관의 시공자료 등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신속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난 93년 중앙 강남지사의 지하배관 정보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해온 것을 시작으로 안양, 분당, 고양지사는 정보시스템 데이터를 입력중이며 대구, 수원, 부천 본사에 설비를 도입해 98년까지는 모든 데이터 입력을 완료할 계획이다.

열배관 정보시스템이 모두 완료되면 본사에서 모든 열배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설치비용은 9개 사업장마다 각각 1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배관설비 정보시스템을 자체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기관의 지하매설물 정보시스템 구축작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현대엔지니어링(주)

### 몽골 열병합발전소 건설프로젝트 수주 턴키방식 850만달러 규모

현대엔지니어링은 몽골 기간산업개발부가 발주한 열병합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를 8백50만달러에 턴키방식으로 수주했다.

한·몽골 수교후 한국정부가 몽골에 공여하는 차관중 가장 규모가 큰 7백20만달러의 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받아 수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몽골 남고비주 다란자가드시에 3천kW용량의 열병합 발전설비 2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 기자재구매 시운전까지 일괄수행해 오는 99년 11월 이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95년 몽골전력청으로부터 울란바트로시의 1백48MW급 석탄화력발전소 개조사업 컨설팅업무를 수주. 국내엔지니어링업체로는 처음으로 몽골 전력시장에 진출한 이후 활발한 연계수주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극한지방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설계와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몽골 현지에서 생산되는 석탄으로 대체할 예정이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대중공업(주)

### 태안火電 터빈발전기 2基 수주 일원화 해제후 민간기업 처음

현대중공업은 태안화력발전소 5, 6호기에 들어갈 5백MW급 터빈발전기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한전과 태안화력발전소용 터빈발전기 2기를 오는 2000년까지 총 6백억원에 제작, 공급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지난 96년 발전설비시장 일원화 조치가 해제된 이후 민간기업이 정부발전공사를 수주한 최초의 사례이다.

태안화력발전소 5, 6호기는 5백MW급의 한국형 표준발전소로 올 11월에 착공돼 2001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4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기술제휴해 50~1백60MW급 가스터빈발전기의 설계 제작 품질보증 등 전분야의 핵심기술을 전수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 및 남미 등의 개척에도 나서 전체 수주물량의 50%이상을 해외시장에서 올리며 향후 세계 10대 발전설비 메이커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 포항종합제철(주)

### 세계 최대 광양 4냉연공장 준공

年産 180만톤규모 총9.939억 투자

포항종합제철은 총 9.939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연산 180만t 규모의 광양 4냉연 공장이 준공돼 8월 28일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95년 9월 착공해 2년만에 완공된 광양 4냉연공장은 냉연코일 150만t, 전기아연 도금판 30만t씩을 생산해 자동차 가전 등 관련 수요산업에 공급하는 세계 최대이며 최신에 냉연공장이다.

포철은 이번 광양 4냉연공장의 준공으로 포항 1, 2냉연공장과 광양 1, 2, 3냉연공장 등 기존 다섯개 냉연공장과 함께 상호 보완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즉, 500mm의 협폭재와 1,860mm의 초광폭재, 0.15mm의 극박재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 생산이 가능해 수용자가 원하는 모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갖춘 것이다.

이에 따라 포철은 기존공장에서는 두께

0.15mm, 폭500mm까지의 박물 협폭 강판을 생산하고, 광양 4냉연 공장에서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후물광폭 강판을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해 공장별로 특화할 방침이다.

포철은 이 공장이 정상가동되는 98년 이후 냉연제품 수출물량을 지금보다 100여만t 증가한 380만t 수준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포철은 그동안 외국 수요자가 희망하는 물량의 50% 수준밖에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광양 4냉연공장 준공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광폭냉연제품의 수출여력을 확보하게 돼 외국고급재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 진출해 있는 현지 합작공장에 대한 소재공급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 삼성엔지니어링(주)

### 폐수내 질소·인 제거기술 美 수출

7년간 최소 7천만달러 수익기대

국내 엔지니어링업체가 개발한 오·폐수처리 기술이 미국에 수출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미국의 환경전문업체인 오브라이언&기어사와 「하·폐수내의 질소·인 제거기술」에 대한 독점적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엔지니어링업체가 환경처리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기술을 제공하는 대



## 외연사 동정

가로 앞으로 7년간 매년 매출액의 6%를 기술료로 받고 오브라이언&기어사가 이 기술을 적용해 얻은 순이익의 3%(기자재공급포함)정도를 별도로 배분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1천만달러씩 7년간 최소 7천만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의 이 부문 시장규모(공공부문)는 98년 5억 4천만달러에서 2001년 1백8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오브라이언&기어사는 매년 2~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오브라이언&기어사와 미국 중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동마케팅을 전개, 미국환경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력을 배양하고 미국 남서부 및 캐나다 유럽 등지로의 진출도 꾀하는 등 엔지니어링 신기술의 해외수출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8월 확충한 미주 R&D센터를 전력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하·폐수내 질소·인 제거기술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지난 88년부터 총 50억원을 투자,

미국 뉴욕 폴리테크닉대학과 공동개발한 것으로 국내외에 특허출원중이며, 올 4월에는 국산 신기술 인증마크인 KT마크를 획득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기술이 하천 및 상수원의 가장 큰 오염물질인 질소와 인을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98%이상 제거할 수 있는 등 세계 최고의 효율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 한 전 기 공 (주)

### 97년도 2차 사업소장회의 개최

회사 도약 기반구축 다짐

한전기공(주)은 97년도 2차 사업소장회의를 이원사장을 비롯, 경영진과 전처(실)장 및 1차 사업소장·정비기술지원반장·시운전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1일 경주에 있는 현대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영평가 우수사업소에 대한 표창과 월성(시) 2호기 준공에 따른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한 하절기 전력수급에 대한 대책사항을 설명하고, 경영 2차년도 중점추진사항도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원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올해에도 경영 2차년도 중점추진사항을 중심으로 97년을 '회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해'로 정착시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행사 후에는 김채겸 고문의 「한국경제 발전의 특수성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경제특강도 이루어졌다.







**(주) 유 공**

**회사명 「SK Corporation」으로 변경**  
이교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주)油公은 그룹의 CI (Corporate Identity·기업이미지 통합)개정에 맞춰 계열주유소를 전면 새로 단장한다.

유공은 오는 10월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회사이름을 「SK Corporation」으로 바꾸는 한편 계열주유소의 디자인을 전면 새롭게 교체하는 VI(Visual Identity)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 경 전	변 경 후
 유공 주식회사 유공	
	

유공은 새로운 디자인을 첨단·고급에너지, 국제적인 감각을 도입해 경쟁사와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붉은색 이미지는 유지하되 파스텔톤을 가미해 보다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바꿀 계획이다.

한편 유공의 신규사명인 SK주식회사(SK Corporation)는 타 그룹사나 다른 계열사들과는 달리 사명에 업종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그룹 대표기업으로서의 위

상강화와 함께 향후 사업 영역 확장과 다각화에서 무한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천 전 기 (주)**



**회사 상호명 및 CI 변경 시행**  
이미지 제고 재도약 계기 마련

利川電機(株)는 지난 9월 2일자로 회사 상호명과 CI를 변경했다.

이번에 이루어진 변경 배경은 삼성그룹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와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이미지 제고 차원으로 이천전기의 또다른 의지 표현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천전기는 1938년 설립된 이후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펌프, 수배전제어반, 수처리·환경시스템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중전기 업체이다.

특히, 이천전기는 금년을 정상탈환을 위한 재도약의 시기로 정하고 2005년 국내 최고 수준의 중전업체를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변 경 전	변 경 후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b>이천전기주식회사</b>
	

## (주) 유 공 가 스

### 가스기기 사업 설명회 개최 판매대리점 사장단 100여명 참석

(주)유공가스는 '97년도 부탄히터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부탄히터 판매대리점 사장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기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경쟁이 심화되어 가는 시장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Program으로 진행되었는데 외부강사 초청강의에 이어, 부탄히터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슈퍼스 추구에 대한 분임토의를 실시하였으며, 각 대리점 사장단은 당초 계획된 시간을 초과하여 23시까지 캔미팅을 실시하는 등 대단한 열의 속에 진행되었다.

이어서 사업정책설명, 체육행사(OL)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리점과 MAKER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이어져, 참석자 모두가 금년도 사업의 성공적인 모습을 확신할수 있는 사업설명회가 되었다.

## 한국원전연료(주)

### 국제품질인증자격 ISO9001 획득 대외신뢰도 입증 전기마련

국내 유일의 핵연료 설계·제조 전문회사인 한국원전연료(주)는 지난 9월 3일 미국 UL사로부터 국제품질인증자격인 ISO9001을 획득하였다.

한국원전연료는 핵연료 설계와 제조분야에서 국제적인 품질인증자격을 획득함으로써 국산 핵연료의 우수성과 제품의 대외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달 착공된 신포 대북한 경수로 지원 등 향후 해외수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 전세계 70개국 이상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LG칼텍스정유(주)

### 對北 중유(B-C油) 7만톤 공급 9월말까지 3차례 수송계획

LG칼텍스정유(주)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최근 실시한 97년도 6차분 對北 중유공급 국제입찰에서 공급자로 선정돼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중유(B-C油) 7만톤을 북한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중유물량은 금년들어 가장 큰 규모로 유황함유량이 0.2%인 중유(B-C油)이며, 가격은 톤당 1백10달러(FOB 기준)로 현재의 국제시세(싱가폴 현물시장 8월평균 가격 톤당 1백7달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이다.

이에 따라 LG칼텍스정유는 8월 31일~9월 4일 2만4천톤, 9월 16일경 2만4천톤, 9월20일경 2만2천톤 등을 파나마선적 맥파이(Mag-Pie)호와 중국선적 리우해(Lin-He)호 및 다칭(Da-Qing)호에 각각 선적, 북한 선봉항과 남포항까지 수송할 계획이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97년도 태양에너지 세계대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분야 실용화 촉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가 주관하는 1997년도 태양에너지 세계대회(ISES 1997 Solar World Congress)가 국제태양에너지학회(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와 한국태양에너지학회(KSES) 공동주최로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대전광역시 후원아래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유성 리베라호텔 국제회의장 및 엑스포 과학공원내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80개국 800여명(국내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태양에너지의 실용화(Solar means business)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446편(국내 87편)의 논문발표와 80개 기관 및 기업이 전시행사에 참여하여 기술의 발전된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목적은 태양에너지등 신



· 재생에너지분야의 과학기술정보 교환 및 신기술 발표와 산업전시를 통한 실용화 가능성 및 활성화에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기술의 확보와 태양에너지등 보유기술의 저개발 국가로의 기술이전과 시장개척을 위한 방안도 모색되었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 양성자가속기 국제워크샵 개최

국내외 전문가 20여편 논문발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국제워크샵을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원자력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KOMAC: Korea Multi-Purpose Accelerator Complex)계획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검증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서는 미국 알곤 국립연구소의 조양래박사가 "세계적인 핵파쇄 중성자원 가속기의 비교", 미국 부르크헤이븐국립연구소의 이용영박사가 "부르크헤이븐국립연구소의 AGS/RHIC 가속기의 현황"을, 캐나다 사스카 체완대학 신용무박사가 "KOMAC의 계측시스템", 원자력연구소 박창규박사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KOMAC 프로그램의 배경"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약 2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